

제424회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4월10일(목)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상정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1
○ 위원장(한정애) 인사 2
2. 간사 선임의 건 3
○ 간사(이소영·임이자) 인사 4

(11시0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국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위원 중 최연장자로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위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김정호 위원입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구성된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21대 국회에 이어 다시 한번 활동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성과를 내는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07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47조제1항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구두 추천으로 선임해 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국회법 선례에 따라 구두 추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한정애 위원님을 아무도 추천 안 하네. 제가 할까요?

○김성환 위원 각본이 누가 추천하기로 돼 있는 거 아니야?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호 이걸 각본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성환 위원 임이자 위원님이 추천하시는 걸로……

○임이자 위원 제가 할까요?

○김성환 위원 예.

○임이자 위원 제가 하고 싶습니다.

(웃음소리)

○김성환 위원 추천을 하시라고.

○임이자 위원 한정애 위원장님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호 아까 임이자 간사님 자천은 철회하시는 거지요?

○임이자 위원 한정애 전 장관님은 4선 의원으로서 환경부장관도 하셨고 또 기후특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과 그 정도의 능력이 되신다고 보기 때문에 어차피 민주당의 몫이라면 한정애 전 장관님이 하시는 게 좋겠다고 해서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호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한정애 위원님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회의 진행을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장직무대행, 한정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한정애) 인사

(11시09분)

○위원장 한정애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장으로 선임된 한정애입니다.

약간 좀 떨었습니다. 안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떨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평소 기후 문제에 관심을 정말 많이 가져 주시고 또 존경해 온 위원님들과 기후위기특위를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 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그리고 환경부장관 등 기후 문제 관련한 여러 임무를 해 오면서 의정활동의 상당 부분을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특위가 갖는 사회적 무게를 누구보다 깊이 실감하고 또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다음과 같이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집단행동이냐 집단자살이냐, 그것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기후 평균기온 1.5℃ 상승이 눈앞에 가시화되고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의 대응이 지금과 같이 똑같다면 아마 최근에 있었던 초대형 산불은 미래 세대에게는 일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기후특위의 출범은 기후 재앙의 일상화를 막고 미래 세대에게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제대로 물려줘야 한다는 어찌 보면 국민적 요구에 대한 국회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또한 여야의 문제도 아닙니다. 국가의 존망과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지요. 오직 정파를 초월한 일관된 정책 그리고 강력한 실천만이 그 해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기후특위가 정말로 모두가 책임감 있게 함께하는 특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위의 핵심 과제는 바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미래 세대에게 우리 세대의 책임을 제대로 선언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에 기반하되 가장 의욕적인 감축 목표를 수립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이행의 분수령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기후특위는 제한적이기는 합니다만 입법권 그리고 예산심의권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 권한을 위원님들과 함께 최대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법안과 예산을 실효성 있게 다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기후특위가 국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부디 위원님 여러분의 비상한 관심과 또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1시13분)

○위원장 한정애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은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사 선임 방법은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소영 위원님을, 국민의힘에서는 임이자 위원님을 간사 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각 교섭단체로부터 추천된 두 분을 우리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간사 위원님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이소영·임이자) 인사

(11시14분)

○위원장 한정애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두 분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간사님께서 존경하는 임이자 간사님께 먼저 마이크를 돌렸습니다.

○임이자 위원 우리 지금 여당이 아니에요. 1당 먼저 하세요.

○김성환 위원 선수가 높으시잖아요.

○임이자 위원 감사합니다. 선수가 높다고 먼저 하라니까,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게 된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제22대 국회 기후특위에서 위원장으로 역할을 해 주실 한정애 위원님, 특위 안전 및 의사일정 조율을 위해서 함께 간사로 활동해 주실 이소영 위원님 그리고 기후특위 위원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이제는 기후위기라는 말이 익숙해질 정도로 국민 모두가 기후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가와 기업도 기후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의힘 기후특위에서도 오늘 오전 기후물가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기후 탓으로 돌릴 수는 없으나 모든 문제가 기후와 연관되어 돌아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난 3월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인간의 실화가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작은 불씨가 열흘간 지속된 산불의 대형화, 영남 산불 이후에도 여러 지역에서 계속되는 산불의 일상화는 이상고온과 건조 대기 상태, 강수 패턴 등 기후변화로 비롯된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한편으로는 새빨간 화마가 경북 의성 산을 뒤덮고 있을 때 수킬로 떨어진 제 지역인 상주에서도 저온 피해로 과육들이 얼어붙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저는 사과 냉해로 인해서 고생을 했는데, 지금 이 회의가 끝나면 또 바로 내려가야 됩니다. 배 냉해가 와서 또 내려가서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처럼 산불과 냉해 동 시간에 공존하기 어려운 재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후변화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탄소배출 저감과 동시에 기후위기 시대에 지혜롭게 적응하기 위해서 국회 기후특위에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위는 임기가 26년 5월까지 한시적이고 심사할 수 있는 법안은 탄축법과 온실가스 배출권법 두 가지에 그치지만 이는 21대 국회 기후특위 권한과 비교해 보면 진일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위에 부여된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질적 성과를 내는 특위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이 자리에서 특위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기후는 하나의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회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핵심 어젠다로 다뤄져야 할 시급한 현안입니다. 기후특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소속된 상임위에서 기후위기와 기후적응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해 주시고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애 임이자 간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소영 간사님 인사말씀 들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당 간사를 맡게 된 이소영 위원입니다.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기후특위를 발족시키기 위해서 지난 10개월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을 해 왔는데 이렇게 첫 회의를 하게 되는 것이 감회가 남다릅니다. 작년 22대 총선이 끝나고 임기가 시작되기 전 시점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정당의 위원님들과 함께 모여서 기후특위 상설화하고 또 22대 국회는 기후국회로 만들어 보자는 공동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국민의힘 김소희·김용태 의원님도 지금 앞에 앉아 계신데요. 당시 언론에서 22대 국회의 첫 협치 장면이다 이렇게 평가했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정치가 풀 한 포기 자라기 어려울 만큼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당 간의 갈등과 대립도 극심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후위기 문제만큼은 정파를 넘어서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야지만 한걸음이라도 진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 위기를 다루는 특위의 간사를 맡게 된 만큼 무거운 책임감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저보다 훨씬 더 큰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임이자 간사님의 입장과 의견을 늘 존중하고 또 저와 생각이 다른 위원님들도 분명히 제시겠지만 쉽게 포기하거나 힘에 기대지 않고 그 의견을 좁히기 위해서 더 많이 대화하고 노력하는 그런 위원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간 최대한의 변화와 성과를 함께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애 이소영 간사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부터 시작해서 교대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득구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강득구 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환노위 소속 강득구 위원입니다.

제가 주요 현안이나 의제가 있을 때 중심 기제, 바라보는 관점의 중심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기후특위가 저에게 주어진 의미는 남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화 이후에 지구의 온도가 1.5℃ 상승했다고 합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인류는 연간 14억t에 가까운 탄소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이런 숫자들이 갖고 있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기후특위에 임하면서 이런 숫자 뒤에 숨겨진 합의된 사람을 좀 더 보겠습니다.

흔히 기후위기를 두고 인류의 위기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라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또 앞으로 잃을지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인 직장을 잃

었는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우리 안동 포함해서 주변 지역의 산불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한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기후특위가 사람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그런 특위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입장에서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보 보수, 여야를 넘어서 큰 틀에서 함께 기후위기를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주어진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애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김소희 위원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김소희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환노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득구 위원님, 환노위에서 같이 활동하는데 배서 너무 반갑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후특위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히 지향하는 방향이 같지만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다 보면 또 치열하게 다투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올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활동하지만 감축 목표 설정이라든지 NDC 제출이라든지 또 내년부터 있을 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된 할당량이라든지 세부적인 디테일이 있는 부분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서 저희가 아, 기후특위가 정말 일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서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애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김성환 위원 산자위에서만 7년째 일을 하고 있는 김성환입니다.

제가 어떻게든 지구를 좀 지켜보려고 산업위에서 계속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후특위가 지금은 1년으로 시작하지만 상설화되고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지구를 지키는 일을 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 지구, 우주적으로 보면 매우 기적 같은 행성입니다. 이 행성 이름이 블루 마블입니다. 1972년에 아폴로17호가 달나라를 가다가 찍었는데 그 지구를 보면 국경도 사람도 만리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가 지구의 생물이 묻어놓은 석탄과 석유를 너무 한꺼번에 가져다 쓰면서 기후위기가 코앞에 닥쳐 있습니다. 조금 멀리 내다보면 6700만 년 전에 공룡은 자기가 멸종할지 모르고 멸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는 이 기후위기가 더 심각해지면 우리 인류도 멸종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냄비 속의 끓는 물 안에 들어 있는 개구리처럼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걱정이 태산이고 이게 갈수록 현실이 되고 있고 그 현실 앞에, 그 현실을 극복하기는 커녕 적응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걱정이 큼니다. 인류가 다 닥쳐 있는 문제이니 쫓아가면 되겠지가 아니라 기왕에 그 위기가 코앞에 있으면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변화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모범과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종의 산업혁명 이후의 새로운 문명의 선두 국가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기후특위가 큰 역할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저도 작지만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정애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김용태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김용태 위원 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용태입니다.

먼저 기후특위를 발족하게 함께 노력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위에 주어진 권한이 좀 제한적이지만 최대의 성과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야의 협치 모델의 준거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관련해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해 영국 기후변화위원회, 이른바 CCC라고 불리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독립성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에 기반하는 것이고 전문성이라는 것은 아카데미한 것이 아니라, 아카데미한 것보다는 산업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소통 그리고 방향에 대한 목표와 합의, 존중의 결과로 형성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2050년 탄소중립이나 2035 NDC를 세우고 전략을 설계해 나갈 때 대한민국의 이러한 산업 현실을 정말 잘 반영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는 보편적 가치 속에 국가적 이익을 녹여 내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의 기반을 기후특위에서 합의하고 만들어 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서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기후대응기금 확대를 위해서는 결국 탄소배출권 유상할당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에서 실시하고 있는 10% 유상할당을 과감하게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대응산업 전략과 관련해서 우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작으로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탄소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유럽연합 그리고 파리협정을 탈퇴하고 석유와 가스 산업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 나아가서 탄소중립 목표를 2050년이 아니라 2060년으로 정해놓은 중국, 이 세 국가연합의 변수를 살피면서 30년·50년 계획과 실행 전략을 깊이 고민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복지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기후 대응 역시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기후특위가 산업계의 현상 유지가 아닌 혁신을 이끌어 산업 혁신과 기후 목표를 동시에 이루어 내는 대한민국의 기후발전 시대를 여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애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김정호 위원** 김해 출신 김정호입니다.

저도 산자위에서 5년째 에너지산업 재편 이런 데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역 현안 해결에도 애를 써 왔습니다. 지난 21대 기후위기특위에서도 그때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마지막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조금 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소회는 이게 한시적이었고 오늘 또 위원장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예산 심사나 입법 심사 이런 것들 권한이 없어서 사실 되게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22대에서는 좀 개선되기를 기대했는데, 조금 진전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한계에 놓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후위기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고 또 이번에 22대 기후위기특위 위원장을 맡으신 한정에 위원장님, 임이자·이소영 간사님 또 우리 특위 위원님들 면면이 다 자기 분야의 전문가로서 우리들이 그런 한계를 뚫고 갈 수 있는 저력이 있어 보입니다. 비록 1년 짧은 기한입니다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상설화까지 되고 다음에는 권한이 더욱더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그래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후위기특위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정애** 김정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서범수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울주군 출신 서범수입니다.

저희 지역도 최근에 5박 6일 정도 산불이 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기후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아마도 우리 글로벌 사회의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그런 이슈이기도 합니다.

제가 국토교통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찬히 생각해 보면 국토교통위도 이 기후위기와 관련되는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차근차근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정말로 이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우리 아이들 그리고 그 이후의 우리 미래 세대의 생존 내지는 삶을 책임진다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애**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민형배 위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입니다.

22대 국회 기후특위 첫발, 되게 좀 무겁습니다. 이 특위 발족은 아마도 기후위기라고 하는 인류에게 아주 위협적인 그런 시대적 과제에 우리 국회가 응답하겠다는 주권자,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봅니다.

최근 영남권의 대형 산불이나 조금 전에 임이자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상주 냉해 피해 같은 이런 데서 보듯 정말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더 큰 위기가 휘몰아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기후특위는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더 압축적으로 더 심층적으로 일

을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속도감 있고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제도개선에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뜻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이래로. ‘사법은 어제를 심판하고 행정은 오늘을 집행하고 입법은 내일을 준비한다’ 그런 말인데요 이 기후특위에 딱 어울리는 말이라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과 이 나라 공동체와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진정한 기후국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정애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현승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李憲昇 위원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활동하게 된 부산 진구을 출신의 이현승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 활동을 국토교통위원회를 10년 연속으로 했고 그다음에 국방 거쳐서 지금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우리 국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그러면 선뜻 동의를 하기 참 어려웠는데 이번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제가 자원해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활동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평소에 한정애 위원장님 존경하고 저랑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위원장으로 모시게 돼서 더더욱 영광이고, 또 이소영 간사님 또 임이자 간사님 각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해 주시는데 우리 기후위기특별위원회도 여야 없이 정말 간사님들끼리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면면을 보니까 다선 의원님들은 저하고 면이 많고 굉장히 교류도 있는데 처음 활동하시게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 활동을 통해서 서로를 잘 알아 가는 그런 과정으로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인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소영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후위기특위 활동은 여야를 떠나서, 정당·정파를 떠나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 지속가능, 발전가능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함께 좋은 정책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정애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박정현입니다.

먼저 기후위기에 진심인 한정애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기후특위를 같이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최근 영남 지역 대형 산불로 31명이 희생되었고요 3000여 채가 넘는 주택이 전소됐습니다. 2조 원에 가까운 피해액이 발생했는데요. 이번 산불은 기후위기의 명백한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 절멸의 위기를 막아 내기 위한 기후 대응 시대에 국회 기후특위에 참여하게 되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저는 대덕구청장 시절에 전국 최초로 탄소인지예산제를 도입했고 중소 영세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덕형 RE100을 추진했고 그리고 주민참여형 기후 대응을 위한 넷제로 공판장과 에너지카페 개소, 에너지자립마을 등을 구축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책의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매우 낮음을 체감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기후 대응은 매우 실망스럽고 후진적이었습니다. 기후 정책의 실패가 경제 위기를 가져온 측면도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후특위가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번 22대 국회 기후특위가 지난 21대 기후특위보다는 입법권 등 일부 권한이 부여되면서 진일보했습니다만 여전히 비상설특위이고 입법권도 탄소중립기본법과 배출권거래법, 2개의 법률안만을 심의 의결할 수 있습니다. 재정 관련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견 개진권만 가지고 있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게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과 진정한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국회의 기후특위 상설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기후위기와 관련된 모든 법안과 예산안도 심의 의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상설화되고 모든 법안을 심의 의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이번 22대 국회의 기후특위가 대한민국 미래의 중요한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애 박정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지연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지연 위원 반갑습니다.

국회 환노위 소속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나라 경제와 산업 경쟁력 그리고 자연재해와 생활 물가 등 국민 민생과 직결되는 기후위기 대응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정말 시대적 과제이자 또 민생 과제인 이 문제를 풀어 가는 데 있어서 저도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정애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지혜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박지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정부갑 박지혜 위원입니다.

저는 산자위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에너지 전환을 최우선의 의정 과제로 생각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나기 전에, 늦은 감이 있지만 기후특위가 출범하게 된 것을 정말 의미 있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2025년이 파리협정이 체결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각종 기후 문제가 우리 일상은 물론이고 생명과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분들께서 영남권 대형 산불을 언급하셨는데요. 그 대형 산불로 인해서 배출된 온

실가스 배출량이 약 366만t, 삼척이나 강릉에 운영이 되고 있는 대형 석탄발전소가 1년에 배출하는 양의 3분의 1이 이번 대형 산불로 인해서 배출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기후위기가 기후재난을 발생시키고 또 이런 기후재난이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그런 고리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올해 저희 기후특위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크게 세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작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저희 내년 2월까지 개정을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감축 경로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에 맞는 감축 경로를 내놓아야 할 것이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도 시급합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2035 NDC 제출, 저희 11월에 브라질에서 당사국총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전에 늦지 않게, 사실 이미 늦었습니다. 그 당사국총회 9개월 전까지는 감축 목표를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아직까지 초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NDC 제출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6월까지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요. 앞서 김용태 위원님도 유상할당 비율 상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유상할당 비율을 이 할당계획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6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직까지도 관계부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는 기후특위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빠르게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후특위가 이번에 법안심사권이나 예산제안권도 가지고 있고 21대와는 다를 것이라라는 기대 속에 출범을 합니다.

21대의 활동내역을 살펴봤는데요. 18개월 동안 6회 정도 활동했고 업무보고받고 그다음에 자문단의 제안을 받고 그리고 특위가 종료가 됐습니다. 저희 22대 기후특위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안드린 이 세 가지 과제는 이 기후특위 1년 안에 꼭 같이 달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 또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애 박지혜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종민 위원 저도 산자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후특위 출범을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동안에 기후와 관련해서 국회가 토론을 하고 조사하고 걱정은 많이 했는데 이렇게 실천을 위해서 발을 내디딘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작은 반발이지만 저는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오늘 위원님들 뵈니까 한 분 한 분 다 믿음직하고 뭔가 역할을 하실 분들이어서 저는 이번 기후특위는 뭔가 진도가 나갈 거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기후특위 운영과 관련해서는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어젠다에 대해서는 박지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젠다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저는 그런데 한 가지, 우리 기후특위가 현안도 다르고 과제도 다르기는 하겠지만 대한민국 국회 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꼭 했으면 좋겠다, 그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우리가 생태적 관점에서 보면, 지구를 생명체 유기체로 본다면 아주 높은 고열을 앓고 있는 그런 생명체입니다. 보통 인간으로 보면 39도가 넘으면 응급실로 가야 돼요. 40도 넘으면 생명이 보장이 안 됩니다.

지금 지구가 39도는 넘은 것 같고 40도 언저리에 이제 이르고 있는데 이런 고열 상태에서 이 지구에 있는 같은 공동체가 이렇게 평안하고 안이하다는 게 이것은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문제의식과 긴장감을 함께 우리 국회에 있는 나머지 300명 의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기후특위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그런 기대를 좀 가져 봅니다.

저도 무소속이기는 하지만 신음하는 고열의 지구 소속이라는 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애 고맙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섬, 제주 서귀포시가 지역구인 위성곤 위원입니다.

저는 탄소중립위원회 1기를 해서, 기후특위 1기 저희 당 간사를 했었고요. 그래서 많은 한계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한정애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뭉쳐서 기후위기에 잘 대응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의 미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터는 무너지고 있고 생태계는 흔들리고 있으며 재난은 일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막지 못한다면 경제도 안전도 미래도 지켜 낼 수 없습니다.

긴박감을 넘어서 이제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빠르게 전환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입니다. 태양은 하루도 빠짐없이 떠오르고 바람은 하루도 쉬지 않고 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에너지를 더 넓게 더 똑똑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분산형 태양광시스템 확대와 시민참여형 에너지 정책으로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탄소중립을 향한 실질적인 전환을 이끌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열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산업, 건물, 지역난방에서 열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문제도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야 될 대목입니다. 탄소중립정책이 전기 중심에서 열의 효율적 사용도 함께 고려하는 그런 정책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경북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관리의 실패 그리고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산불로 우리는 사람도 잃었고 생물의 다양성도 잃었고 엄청난 탄소배출을 이뤄냈습니다. 이제는 산림을 단순히 보존하는 시대에서 관리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탄소흡수원으로서 구체적으로 산림에 대한 정책 고려가 필요합니다. 산불에 강한 산림구조를 만들고 임도를 설치하고 지역 맞춤형 숲 관리체계

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를 막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이 특위 자리가 우리가 어떤 방향을 설정하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이번 특위에서 열에너지의 효율적 활용과 산림을 중심으로 한 탄소흡수원 분야에 대해서 집중해서 활동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서 자꾸 이 얘기를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정애 고맙습니다.

위원님, 저도 열에너지 활용 관심 많습니다.

○위성곤 위원 감사합니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한정애 마지막으로 차지호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차지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오산시 차지호 위원입니다.

기후 문제를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기후 완화, 탄소중립에 많은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아직 한국이 대한민국이 기후 때문에 경제시스템이나 산업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아직 죽지도 않아서 사실 이런 위기들이 아직은 오지 않은 위기고 먼 미래의 위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은연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 탄소중립에 초점을 맞추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국회에 오기 전에 인도주의 활동가로 기후위기가 먼저 온 나라들에서 일을 좀 해 봤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학자로 그런 지역을 심도 깊게 연구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기후위기라는 거는 이미 많은 나라에 먼저 와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여름이 좀 더 덥고 겨울이 날씨가 온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기후 문제는 물, 극단적 가뭄이나 홍수를 동반하고 그 부분은 취약국에서 식량문제에 바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취약국에서 식량문제에 영향을 준다는 거는 그 지역경제에 굉장히 큰 충격을 가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식량 제와 충격들이 왔을 때 사람들이 이주하거나 큰 규모의 분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면 또 다르게 경제시스템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 사이에서 수많은 나라들의 인도적 위기상황은 지금 기후 문제랑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우리가 겪었던 위기는 아직 이런 규모의 기후위기를 겪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비슷한 예로 팬데믹을 겪었지요. 팬데믹 하나만 해도 전 세계가 그리고 한국에 있는 경제시스템이 굉장히 취약해지고 무너졌는데, 모든 사람들은 팬데믹이 다시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도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지요. 하지만 다음 팬데믹이 이런 극단적인 기후위기랑 같이 올 거라는 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팬데믹과 기후위기가 같이 온 위기가 고령화된 한국 경제에 충격을 줄 거라는 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위기가 이삼십 년 뒤의 먼 미래가 아닌 2030년대 한국 사회에 올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복합 충격들에 대해서 한국 경제가 버틸 수 있을까, 저는 버틸 수 없

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시스템이 이런 상황 속에서 무너질 뿐만 아니라, 사실 이거는 분쟁·안보 문제에도 연관된 것은, 우리는 또 다른 기후에 대해서 굉장한 취약국인 북한을 국경에 두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기후위기 혹은 경제 충격의 연쇄 속에서 무너지게 된다고 하면 한국이 그 상황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후특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기후 완화, 탄소중립의 문제에 많은 위원님들이 집중하고 계시듯이 저는 다른 쪽 날개인 기후적응 문제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인구문제처럼, 인구문제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면 100년간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는 이미 인류가 만들어 놓은 영향만으로 앞으로 수천 혹은 수만 년간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인류는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 문제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굉장히 과감한 기후적응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들 입법안들을 만들고 위원님들과 같이 우리가 닦쳐온, 이미 와 있는 기후재난·기후위기에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연쇄효과들에 살아남기 위한 방법들을 설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싣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30초만 제가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장 한정애** 차지호 위원님 인사말씀 끝나셨고.

위성곤 위원님께서서 운영 관련해서……

○**위성곤 위원** 발언이 좀 빠진 게 있어서……

○**위원장 한정애** 예.

○**위성곤 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법률이 탄소중립법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면 법률 중심으로 고민하다 보면 실제 일하기에 매우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 상임위가 1당과 2당 그리고 또 무소속까지 합의가 된다면 정책적 권고안들을 되어지는 대로 만들어서 계속 권고를 하는, 정부 부처에 그런 활동을 많이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 특위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자고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애** 우리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뒤에도 잠깐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는 일차적으로 끝났고요. 오늘 1차 전체회의에 함께하지 못한 위원님들이 염태영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서왕진 위원님, 세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다음 회의 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와 관련한 부분이 탄소중립기본법과 배출권거래제 관리하는 법, 2개가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국에 얘기를 해서 어떤 법안, 어떤 법안, 어떤 법안은 관련 상임위로 기후특위를 지정해 달라라고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법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해당 위원회에 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두 분 간사님께서서 각 상임위별 법안 중에 꼭 우리 기후특위의 의견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싶은 법안들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로 지정을 좀 하셔서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다양하게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것 해당되는 법안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 제시가 되고 해당 위원회에서도 기후특위의 의견을 가능하면 좀 존중해서 법안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방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두 분 간사

님과 논의를 해서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실 전문위원 그리고 위원회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시지요.

신항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허병조 전문위원입니다.

임재금 전문위원입니다.

유인규 전문위원입니다.

임종수 전문위원입니다.

이외에도 행정실장 임범조사관 주무관 등 여러 직원이 우리 기후특위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박수)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여기가 상설이 아니라 특위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금, 지금 현재도 보면 박정현 위원님부터 차지호 위원님까지의 좌석이 굉장히 좁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두 분이 앉으시는 자리에 지금 세 분씩 앉게 되어 있고, 여기도 조지연 위원님과 서왕진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이 세 분이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한 게 있습니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지는 두 분 간사님과 행정실장님 논의를 해서, 그래도 조금은 의정활동 하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조정을 해 보는 방안을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와중에 염태영 위원님께서 와 주셨습니다. 그러면 염태영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아이고, 숨도 돌리기도 전에. 이렇게 끝나기 전에 잠시라도 같이해서, 기후위기특위에 참여하게 돼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끝나기 전에 들어와서 다행입니다. 오늘 제가 지방 일정이 있어 가지고 부리나케 마치고 왔는데 여의도 주변이 벚꽃 축제로 진입하는 데 시간이 더 걸렸네요.

하여튼 기후특위에 참여해서 아주 우리 시대에 꼭 해야 될 과제를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저로서는 영광이고요. 20년 전에 제가 청와대 지속가능발전 비서관을 했고 또 그 이후에 지방행정을 쪽 하면서 나름대로 느낀 것과 또 그 경험 속에서 꼭 정책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들이 있었는데 기회를 갖게 돼서 아주 다행이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정에 위원장님 그리고 양당 간사님 함께 긴밀히 협의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같이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애** 고맙습니다.

회의를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지금 위원님들 앞에 있는 단말기에 저희가 넣어 놔는데요. 지금 제안해 드리는 원칙 세 가지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출범에 맞추어서 우리의 작은 실천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취지에서 두 분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마련을 한 내용입니다.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앞으로 우리 특위의 모든 회의에서는 생수병이라든지 종이컵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일회용품의 사용과 반입을 좀 제한하고자 합니다.

또 둘째는 회의 시 사용하는 문서는 회의 운영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대체해서 위원님들 앞에 있는 단말기를 통해서 자료를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세 번째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재활용 제품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 그리고 예산 반영을 특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관련 상임위에 제안하는 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혹시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모두 동의를 해 주셔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앞으로 이 원칙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박지혜 위원님.

○박지혜 위원 마치기 전에 그러면 저 의사진행발언 신청해도 될까요?

○위원장 한정애 그러시지요.

○박지혜 위원 저희 특위 운영 관련해서 향후에 어떻게 스케줄을 잡으실지와 관련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저희 각자 의견을 얘기할 때도 NDC 수립 중요하다고 했고요. 유상할당 비율과 관련해서 배출권 할당계획 심의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할당계획 같은 경우는 6월까지 수립이 돼야 되고요. NDC 같은 경우는 11월까지 유엔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출 기한도 사실상 넘겨 있는 상황이어서 빠르게 저희가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정치적인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출범을 했고, 하지만 여야 관계없이 정파와 관계없이 우리가 기후특위를 운영하기로 한 거니까요. 큰 정치적인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장님 그리고 양당 간사 위원님들께서 잘 협의하셔서 빠르게 다음 회의 일정을 잡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의 운영 주기 같은 것도 정례화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애 예, 간사들 간에 당연히 그 부분은 논의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우선은 위원님들 관련 부처의 업무보고를 좀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의 날짜와 어느 부서를 먼저 할 것인지부터 해서 그 계획을 두 분 간사님께서 논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특위가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할당계획 6월 이전에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배출권거래제 관련한 법안의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차원으로 고민을 해 본다고 하면 사실 4월 중에 어

시간하면 업무보고는 다 마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회의는 정리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느 달의 몇째 주와 몇째 주의 무슨 요일은 그냥 특위가 있다라고 하는 게 되면 그때 맞춰서 하는 게 아마, 이게 비상설특위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님들 일정을 조율하기가 훨씬 편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두 분 간사님들께서 가능한 한 우리 특위가 압축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협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 밖에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을 해 주시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배가 고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므로 다음 회의 일정은 간사님들과 협의한 후에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강득구 김성환 김소희 김용태 김정호 김종민 민형배 박정현 박지혜 서범수
염태영 위성곤 이소영 이현승 임이자 조지연 차지호 한정애

○청가 위원(2인)

서왕진 조은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전문위원 허병조

전문위원 임재금

전문위원 유인규

전문위원 임종수